



AI 페퍼스, 젊은 패기로 연패 끊는다

이한비

오늘 광주서 도로공사와 대결 ... 높은 블로킹 벽 뚫어야 승리



9연패 수렁에 빠진 AI 페퍼스가 급속 성장하는 신인의 패기와 상승세에 오른 분위기로 '연패 끊기'에 도전한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16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맞붙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6연승을 기록하며 4위에 자리잡고 있다. 도로공사는 총 득점 336점으로 득점랭킹 3위를 차지한 외국인선수 켈시와 박정아·배유나 등 국가대표, 최근 기량이 가파르게 상승한 전새안 등 강력한 선수들로 무장했다.

AI페퍼스는 공격부터 수비까지 전체적인 성적에서 도로공사에 밀린다. 특히 도로공사의 높은 블로킹 벽을 뚫는 게 숙제다. AI페퍼스는 지난 2라운드에서 도로공사에게 12번이나 블로킹 득점을 내주면서 쓴 맛을 봤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승산이 없는 건 아니다. AI페퍼스는 지난 11월 28일 2라운드 도로공사

전에서 1세트를 25-21로 가볍게 제압한 적 있다. 경기 초반부터 서브에이스를 수차례 성공하며 분위기를 탄 덕이었다. 당시 4세트에서도 23-25 접전을 펼치는 등 선전하기도 했다. 도로공사 상대로는 범실 평균 16.5회로 전체 평균(21.2회)보다 다소 적다.

도로공사전 승리의 키워드는 '패기'와 '분위기'다. AI페퍼스는 최근 패기 있는 신인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12일 인삼공사전에서 박은서가 선발 출전해 17득점을 뽑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AI페퍼스는 엘리자벳에게 공격 점유율 39.92%를 몰아줬다. 지난 2라운드 도로공사전에서도 엘리자벳은 공격 점유율이 47.20%에 달했다. 엘리자벳만 견제하면 힘이 쏙 빠지는 플레이가 반복됐다.

박은서의 등장은 그동안 공격 부담이 집중됐던 엘리자벳을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마침 엘리자벳은 최근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박은서의 성장이 더욱 반갑다.

분위기도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2라운드 동안 AI페퍼스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다. 시즌 초반처럼 선수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고, 전처럼 끈기 있고 기민한 플레이가 보이지 않았다.

반전의 싹이 튼 건 지난 8일 열린 GS칼텍스전부터다. 박은서의 활약과 끈질긴 플레이, 역대 경기 중 최대 기록인 서브에이스 8회 등을 선보이며 분위기 상승세에 올랐다. 12일 인삼공사전에서는 국내 선수들만으로 코트를 채우고도 쉽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여자배구는 특히 컨디션과 분위기에 많이 변하는 스포츠"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만큼, 앞선 두 경기에 대해 "분위기 반전이 돼 만족스러운 경기였다"고 평했다.

김 감독은 "1승이 너무 빨랐던 탓에 승리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선수들 움직임이 둔해지곤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재미있게 열심히 신나게 배구를 해야 된다"며 "자신감을 갖고 의식적으로, 편안하게 플레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에서 제2의 야구 인생 그리는 전 KIA 포수 이성우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프로 21년... 난, 행복한 선수”

초·중·고교 포수들 대상

주말 코치 재능기부 활동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선수'였다. 포수 이성우. 21년의 프로 생활을 끝낸 그가 제2의 고향 광주에서 또 다른 야구 인생을 그리고 있다.

이성우는 지난 주말 '코치남'이 됐다. 지난 11·12일 광주 광산구 신촌동 '김재현의 야구야'에서 지역 초·중·고 포수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이성우는 "프로 있을 때부터 아마추어에 포수 전문 코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역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 지도라는 걸 처음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웃었다.

올 시즌 LG에서 프로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집은 광주다. 2008년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고, 2017년 천정 SK(현 SSG)로 돌아갈 때까지 10년간 광주에서 생활했고 여전히 살고 있다.

이성우는 "처음 KIA로 트레이드됐을 때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광주가 살기 좋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 광주에서 와이프를 만나 결혼했고, 두 딸도 낳았다"고 말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은퇴를 예고했던 그는 최고령 포수로 36경기에 나섰고, 은퇴 경기까지 치르면서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이성우는 '백업'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선수였던 만큼 의미 있는 마무리였다.

이성우는 "와이프에게도 맡은 안했지만 사실 40살이 목표였다. 그런데 1년 더 연장되고, 팬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최고령 타이틀도 받아보고 해볼 것은 다 해본 것 같다"고 웃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반대로 경

험을 쌓는 게 어려운 포지션, 백업들의 설움도 잘 안다.

이성우는 "잘해도 티가 안나는 자리이고 훈련할 게 너무 많다. 어린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준비는 돼 있는데 경험이 부족해 시합 나갈 확률이 떨어진다. 그게 포수 포지션의 딜레마다. 백업 포수들에 대해서는 수비적인 평가도 더 해주면 좋겠다"며 "백업을 해보지 않은 이들은 모른다. 백업들은 주어진 역할을 100% 실수 없이 이행해야 한다. 실수하면 모든 걸 안고 가야 한다. 나는 실패한 경험이 많아서 부담을 이겨낼 수 있었다. 너무 잘하려 하면 오히려 위축되고 그래서 '실패하면 욕먹지'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하려고 했다. 그게 경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기본기'와 '부상'을 강조한다.

이성우는 "시합 나가려면 수비가 1번이다. 또 다치지 않아야 한다. 다치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며 "초등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받지 말고 최대한 즐겁게 운동하라고 했다. 그래서 훈련은 많이 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프로에서도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를 배운다고 말했다. 기본기가 잘 된 선수가 통란하고 부상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기본기 연습은 정말 지루하다. 기본기 중요성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깨닫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야구 인생 1막은 끝났지만 새로운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찾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성우는 "화려하게 프로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였다고 생각한다. 이성우하면 '포수' 이렇게라도 기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40살 넘게 야구 할 수 있었고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LG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한 포수 이성우(왼쪽)가 지난 12일 광주 신촌동 '김재현의 야구야'에서 지역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이란 원정골 '올해의 골' 선정

대한축구협회 팬 투표

황의조 투르크전 골 2위

'벤투호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 원정경기에서 터트린 골이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골'이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팬 투표 결과 손흥민의 이란전 골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3547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1026명이 손흥민의 골에 표를 행사했다.

손흥민은 10월 12일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경기에서 후반 3분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려 골대를 갈랐다.

황인범(카잔)의 탈압박과 이재성(마인츠)의 매서운 패스 그리고 손흥민의 침착한 마무리가 어우러진 멋진 골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아시안컵 결승 호주전), 2016년(리우 올림픽 독일전), 2018년(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올해의 골'을 장식했다.

'올해의 골' 2위는 월드컵 2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에서 황의조(보르도)가 완성한 힐킥 골이 됐다. 이 골은 970표를 받아 1위와 불과 50표 차이였다.

이어 이동경(울산)의 도쿄 올림픽 멕시코전 중거리 골이 3위(757표), 황인범의 월드컵 최종예선 시리아전 골이 4위(336표)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기'는 100% 관중 입장이 허용된 가운데 치러진 월드컵 최종예선 아랍에미리트전이 선정됐다.

11월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대표팀은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로 3만여 관중을 열광시키며, 1-0 승리를 거뒀다. 황희찬(울버햄프턴)이 페널티킥골을 만들었고, 조규성(김천)과 손흥민의 슛이 잇따라 골대를 맞추는 등 흥미로운 경기가 전개됐다.

이재성, 손흥민,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의 연속 골로 시원한 3-0 승리를 만든 월드컵 최종예선 이라크 원정경기는 739표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 원정경기(1-1무), 골 잔치를 벌인 월드컵 2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5-0승)이 각각 3·4위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토트넘)이 이란전에서 넣은 선제골이 국내 축구 팬들이 뽑은 2021년 '올해의 골'의 영광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FA컵 우승 기념 스페셜 상품 판매

티셔츠·스냅백·머플러 3종

우승 세리머니 선수들 착용 제품

전남드래곤즈가 14년 만의 FA컵 우승을 기념해 스페셜 상품을 판매한다.

전남은 15일 "통산 4번째 FA컵 우승이자 K리그2 소속 구단 최초 FA컵 우승 및 AFC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한국축구의 '새 역사'를 팬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스페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티셔츠, 스냅백, 머플러 3종으로 지난 11일 우승 세리머니에서 선수들이 직접 착용한 제품들이다. 판매가격은 티셔츠 5만원, 스냅백 3만원, 머플러 2만5000원으로 3종 세트를 구매하면 1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매는 전남드래곤즈 온라인스토어인 '용샵'에서 프리오더 형태로 진행되며,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주문을 받는다. 상품은 3~4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배송될 예정이다.

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샵(www.jdfcsho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남은 지난 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 CUP 결승 2차전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4-3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확정했다.

안방에서 열린 1차전에서 0-1패로 졌지만 1·2차전 합계 4-4를 기록, 원정다득점에서 앞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이 구단 4번째 우승이었다.

또 전남은 K리그2 팀 사상 첫 FA컵 정상에 오르며 AFC챔피언스리그 티켓도 거머쥐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